



호남대 간호학과, 기부금·헌혈증 전달

호남대학교 간호학과가 프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헌혈증을 전남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2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 신준호 공공부원장, 김유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등 보직자들과 호남대 유혜숙 보건과학대학장, 하운주 간호학과장, 채민영 학회장 등 학생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리마켓 수익금 및 헌혈증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호남대 간호학과는 지난 5월 'NASA(Nurse Adaptation and Students Advance) 프리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 155만원을 전남대병원 직원으로 구성된 학마을봉사회에 기부했다. 학마을봉사회는 이번 기부금을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함께 전달된 헌혈증 100매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호남대 간호학과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전남대병원에 헌혈증서를 지속적으로 기증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주말체육학교 강사 4명 우수강사 선정

2023년 신나는 주말학교의 전남 체육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박찬영·김기성·박승우·김미소씨 등 4명이 우수강사로 선정돼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했다.

2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박찬영(곡성), 김기성(진도), 박승우(장성), 김미소(강진)씨 등 4명이 2023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우수강사로 선정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상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으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순금상패를 받았다. (사진)

박찬영씨는 곡성스포츠클럽 소속으로 축구·피구의 학교밖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성씨는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배드민턴 지도를 펼치고 있다. 박승우씨는 장성군체육회 지도자로 학교밖 골프 지도자로, 김미소씨는 강진군체육회 지도자로 학교밖 볼링 지도자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말체육을 통해 참여자들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국제환경운동가 조승환, 빙하 위 맨발서기

광양시 홍보대사이자 국제환경운동가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AVA PALACE HOTEL'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4시간 40분'을 기록하며 세계신기록을 갱신했다. (사진)

조씨는 "인도네시아 한인회 초청을 받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카르타 침수'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빙하를 뜻하는 얼음 위에서 지구를 표현하는 맨발로 오래 서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중국 청두시 대표단, 화순전남대병원 방문

중국 청두시 대표단이 선진 암 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중국 스촨성 청두시 민정국 당조서기인 왕홍빈(王宏斌) 국장 등 중국 청두시 대표단 7명과 한중문화협회 광주지회 관계자 등이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중국 청두시 대표단은 세계 최고 암병원으로 선정된 화순전남대병원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호 협력과 교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화순전남대병원의 핵심 가치인 '자연속의 첨단의료 환자중심 세계중심'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수한 치료 및 연구 성과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암센터 운영과 전국 최대 규모 치유의 숲 등을 소개받으며 암 환자들의 심신 치유 인프라 등에 감탄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청두시 대표단은 의료, 보건 산업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안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병하 기자**



중흥그룹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

중흥그룹은 26일 중흥건설 사옥에서 '2023년도 우수협력업체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중흥건설 백승권 대표이사와 중흥토건 이경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성일퍼니처 임민자 대표, ㈜운장건설 황성복 대표, ㈜서암 설구호 사장, ㈜해왕건설 문정남 대표, ㈜삼호건설산업 김승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흥그룹은 올해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중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로 계약이행보증보험 면제 기회를 제공했다.

중흥그룹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과 고금리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매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기금은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 지원과 협력사 직원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고경명 장군 표지석 남광주사거리 건립

광주 동구는 남광주사거리 지하철 출구에 제봉로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

표지석은 의병장 제봉(霽峯) 고경명(1533~1592) 장군의 시호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제봉로는 총연장 3230m 폭 25~30m의 2·4·6차선으로 개설된 대로다. 동구 학동에서 북쪽 방향으로 총장로 1~2가, 금남로 1~2가, 대인동을 관통해 북구 중흥동을 잇는 주도로로 개설됐다. 구도심을 경유하는 길로 과거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남대학교 병원, 옛 전남도청 등 관련 사적지를 볼 수 있는 도로로 알려졌다. 고윤근 고씨 광주·전남중문회장은 "고경명 의병장의 혼이 담긴 표지석이 건립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르다"며 "제봉 정신이 오래도록 보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올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서울의 봄'

누적관객 1000만명을 넘기면서 올 해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영화 '서울의 봄' (사진)이 기록 경신을 해나가고 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개봉 34일차인 이날 오전 7시 기준 누적 관객수 1073만5159명을 동원했다. 크리스마스 당일 전국 1481개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42만7037명이 관람했다.

전날 올해 첫 1000만 영화인 '범죄도시3' (1068만명)을 제치고, 가장 많이 본 흥행작이 된 '서울의 봄'은 한동안 누적관객 기록 경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의 봄'은 '기생충' 이후 4년 만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작품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역대 1000만 영화 중 '기생충' (1031만명), '겨울왕국' (1032만명), '인터스텔라' (1034만명),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050만명), '왕의 남자' (1051만명)를 뛰어넘었다.

전날 일별 박스오피스 1위는 영화 '노랑: 죽음의 바다' ('노랑')가 차지했다. '노랑'은 전날 54만9547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223만719명을 찍었다.



'노랑'은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마지막 작품이다. 이순신 첫 번째 이야기인 '명량' (2014)은 1761만명 관객을 동원한 역대 최고 흥행작이다. 2부작 '한산:용의 출현' (2022)은 726만명을 기록했다.

한편 전날 박스오피스2위는 '서울의 봄', 3위는 애니메이션 '신치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기갑~', 4위는 DC스튜디오 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5위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트롤: 밴드 투게더'가 차지했다. **뉴시스**

'윙카', 전 세계 수익 3320억 ↑...제작비 2배 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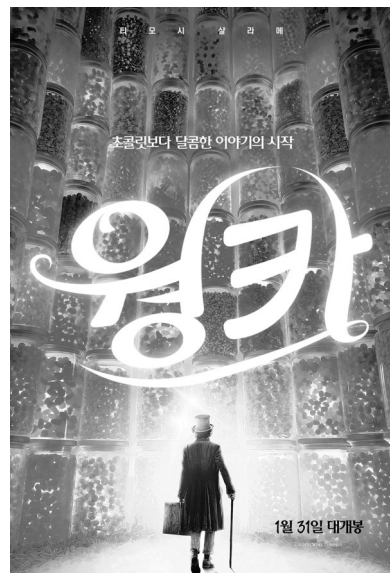
영화 '윙카' (사진)가 전 세계에서 2억 달러(한화 약 2598억원)를 벌어들인 걸로 밝혀졌다.

26일(한국시간)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윙카'는 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의 뒤를 이어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윙카'는 지난 15일 북미에서 개봉하고 8356만 달러(한화 약 1088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전 세계 흥행 수익은 2억5486만 달러(한화 약 3320억 원)로 단숨에 2023년 전 세계 흥행 톱20위에 올랐으며 제작비(1억2500만 달러)의 2배를 벌어들인 성과다.

해외 언론과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로튼 토마토 평균 지수 90%, 시네마스코어 A- 등 실 관객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윙카'는 가진 것은 달콤한 꿈과 낡은 모자 뿐인 윌리 윙카(티모시 샬라



메)가 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기까지 놀라운 여정을 그린 어드벤처 영화로 국내에서도 흥행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이다.

'윙카'는 내년 1월31일 국내 개봉한다. **이주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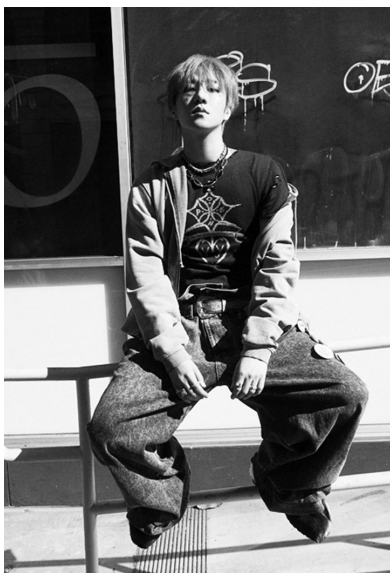
비오, 장애영유아 위해 온기 나눠... 1천만원 기부

가수 비오(BE'O·사진)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온기를 나누고 있다.

26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따르면, 비오는 전날 장애영유아 거주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의 '여주 천사들의 집'에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여주 천사들의 집'은 비오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찾은 기부처로 비오는 지난해와 올해 어린이날에 맞춰 2년 연속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맞춰 1000만 원을 후원하며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에 힘을 보탰다.

비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후원증서와 함께 "더 큰 꿈을 꿀 아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전하며 많은 이들과 같이



온기를 나눴다.

한편 비오는 올해 2월 '아키타' (Akita)와 11월 '미쳐버리겠다 (MAD)' 등을 발매했다. **이주영 기자**